

2013년 10월 시청자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

일시 : 2013.10.31(목) 15:00~16:30

위원 주요 발언 내용

▲ 심층적이고 정확하게 보도해야

- 뉴스의 영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확해야 하는데 대부분 전달 위주로 나열하듯 보도되고 있어 정확한 정보인지 속 내용이 부족함. 명확한 포인트를 심층 보도해야 함(박영상 위원장)
- 전국체육대회 보도시 한해의 대한민국스포츠를 총 결산하는 중요한 이벤트이고 올림픽 개최국가의 최대 스포츠축제인 만큼 중요했으나 심층적이고 세밀한 취재가 부족해 아쉬웠음(최종준 위원)
- 밀양 송전탑 관련 보도시 전문가 인터뷰를 조금 더 심층적으로 다뤘었다면 좋았을 것. 일본 태풍 이후 후쿠시마 배수구 방사능 농도 급상승 관련 보도와 북한 인권문제 등도 심층적으로 다뤄져야 함(차경애 위원)
- 현 정권 고위층자녀들의 국적표기 관련 보도시 국민들의 관심이 큰데도 심층적인 후속보도가 없어 아쉬웠음(김정연 위원)
- 일감몰아주기 관련 내용에서 어느 기업이 물류 광고 등을 한 계열사에 집중하고 상속하는 등 마치 범죄처럼 부정적으로 다뤄졌으나 아직 기업 간 일감몰아주기가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하지 않게 단정적으로 보도돼 아쉬움(임상혁 위원)
- 경제관련 보도시 시청자들로 하여금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정확히 표현해야 함. 예로 DSI라는 경제지표를 경제관련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해 100기준으로 이하이면 나빠진 것으로, 이상이면 좋아진 것으로 봄. 하지만 82에서 86이 되면 좋아졌다고 표현하는데 이는 잘못된 것임 덜 나빠진 것을 좋아졌다고 부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임상혁 위원)
- 보도채널의 또 다른 생명인 정확성 문제는 보도의 신뢰성이라는 차원을 넘어 시청자의 절대적인 신뢰감 상실의 요인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 보도의 정확성을 강화해야 함(최종준 위원)

▲ 화면 구성 및 표현 등 개선필요

- 속보자막이 붉은색으로 나올 때 외국인 인터뷰 장면의 통역 자막이 가려져 불편했음 기술적으로 개선필요(이석구 위원)
- 대담토론장면에서 대담자의 얼굴은 작게 나오는 반면 자료화면이 크게 나오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시청하기 불편함(한박무 위원)

- 대담 토론 중에 속보 기사가 계속 나와 부각됐는데 대담토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토론내용이므로 이미 나온 속보가 반복해서 나오는 것은 개선이 필요함 (한박무 위원)
- 수화방송시 수화화면과 여성앵커의 위치가 겹쳐지는 경우가 있었으므로 카메라 위치 조정필요해 보이며, 앵커데스크 뒷배경 부조정실에 불이 꺼진 상태인적이 있어 방송직원들 모습이 보이지 않아 생동감 떨어져 보였음(한박무 위원)
- 화면 하단의 띠뉴스의 분야별 분류의 필요성과 우측에서 좌측으로 이동하는 것 보다 좀 더 가독성이 좋도록 하단에서 상단으로 이동하는 방식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함(최종준 위원)
- 대통령의 기초연설 현장중계시 시청자의 정보접근과 자막 정리 등은 좋았으나 화면이 어두워 아쉬웠음(차경애 위원)
- 탈북자 출신 조명철의원 개성공단 방문 불허관련 뉴스는 빨강 바탕에 글씨로 방송됐는데 활자 크기가 지나치게 큰 듯해 시청하기 불편함(차경애 위원)
- 기상캐스터의 표현중 '아침 추위를 조금 감수해야 할 것 같습니다.'등 어색한 표현이 가끔 있는데 멘트의 관리가 필요함(김정연 위원)
- 뉴스Y홍보화면에서 '언제나 흐르는 뉴스Y' 라는 자막의 배경화면이 수도권지역에서 수조로 물이 쏟아지는 장면이나 이 화면대로라면 '흐르는~' 보다 '흘러넘치는~' 이 적합한 표현인 것 같음(김정연 위원)

▲ 프로그램 편성 및 기획 의견

- 수화방송의 경우 12시 이후에만 편성되고 있어 12시 이전이나 전체 뉴스에도 적용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석구 위원)
- 토론 프로그램에 부장 국장급이 출연해 일주일간 있었던 보도내용에 대한 토론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면 좋을 것(김경모 위원)
- 한글날을 앞둔 외래어 남용사례 관련 보도시 당일 9일 아침뉴스에 보도되는 데에 그쳤는데 한글날의 역사적 비중과 공휴일 재지정을 감안해 한글날전인 7~8일에 편성하는 것이 적합했을 것(김정연 위원)
- 동원 가능한 취재인력과 장비의 한계가 있는 만큼 시청자가 제공하는 제보와 화면의 중요성과 비중이 커지고 있어 뉴스Y에서도 뉴스제보시스템 등을 운영하면 좋을 것(김정연 위원)
- 국감관련 보도시 발언하는 녹음자료를 들려줬다면 좋을 것, 영상매체에서 말로만 설명하는 방식은 시청자들이 지루할 수 있어 자료녹음 등 적절히 활용해야 함(김정연 위원)

▲ 다양성 차별성 강화해야

- 뉴스Y 경제관련 뉴스 내용 중 대부분 시장경제의 분배내용이 많은 것 같음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면 좋을 것(임상혁 위원)

- 주요 이슈 보도시 다양한 의견을 고루 보여주기보다 쟁점중심의 내용만 경쟁하듯 반복적으로 보도해 시청자들로 하여금 불신과 회의감이 들게 할 수 있음(이석구 위원)
- 24시간 방송되는 보도는 주된 시청자 중에서도 여론지도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면이 강함. 현재의 여론 형성은 전파언론 위주지만 최근 온오프라인 구분이 없어지고 온라인 사이버 공간이 중요시되고 있는 만큼 온라인 주요 시청자 층에게 다양한 의견을 보여줘야 함(김경모 위원)
- 시간대별 뉴스는 대부분 시작시 일기예보로 시작하고 기승전결 모두 비슷함. 뉴스를 조금 더 아기자기하게 꾸며 차별성을 강화하면 좋을 것(박영상 위원장)
- 무지개Y 인터뷰내용은 특색 없는 일반적인 질문이 많은데 작가를 기용해서 질문을 특색 있게 만드는 등 차별화가 필요함(박영상 위원장)
- 정치권 뉴스가 비중도 높고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한쪽으로 치우친 감이 있음. 다양한 시각으로 균형을 잡아야 함(차경애 위원)

▲ 뉴스Y 홈페이지 관련

- 장애인들의 권익을 위해 장애인 접근성 인증마크를 받아 홈페이지를 개편해 주길 요청(이석구 위원)
- 홈페이지의 뉴스정보 중 어떤 것이 중요한 내용인지 구분이 가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함(최종준 위원)
- 홈페이지 우측 상단의 날짜가 10월 28일 아침 새벽 6시인데도 10월 27일로 나왔음. 홈페이지는 메인방송 못지않게 시청자의 창구인 점을 감안하면 매우 중요하므로 시정이 요구됨(최종준 위원)
- 홈페이지 좌측 상단의 뉴스속보 공간은 글자체가 너무 작아서 가독성이 떨어짐. 또한 모든 뉴스가 거의 동일한 비중으로 나열이 되어 있다 보니 고객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면이 부족함. 필요시 화면의 크기를 조절한다던지 플래시 표시로 긴급뉴스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최종준 위원)

▲ 기타 의견

- 검색포털에서 제공하는 뉴스Y 편성표에 장애인 시청권 확보를 위해 수화방송 등 구현될 수 있다면 좋을 것(이석구 위원)
- 일본 NHK는 외래어 과다사용 문제로 나고야에서 시청자로부터 소송을 당한 적도 있는바, 뉴스Y의 경우도 뉴스제목부터 외래어 사용이 지나치게 많음. 전진적인 개선이 필요함(최종준 위원) (끝).